

“ 마지막 심판 ”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는 심판이 여러 종류가 있다고 추론한다. 마지막 심판이란 그 이전에도 심판이 있고, 그 후에는 다른 심판이 없다는 말이 된다. 어떤 이들은 천년왕국 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가는 사람을 판단한다고 한다. 그 후 신자들의 심판과 불신자의 심판이 따로 있다고 하는 이도 있다. 심판이 세 개인지 하나인지 성경을 통해 확신은 못하나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다는 사실이다.

불신자도 신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의 행위들이 다 기록된 책들이 있어 그 앞에서 변명이나 항변할 수가 없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심판 주 되시므로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 멸망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 비교적 깨끗하게 산 사람은 덜 심판을 받는다. 신자들의 심판에도 차등이 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구원에도 차등이 있다는 것이다.

천국 턱걸이만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가보아야 안다. 불 가운데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간신히 구원받는 사람도 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간신히 빠져나온 룯과 같이 구원받은 사람도 있다. <보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고후 5:9-10) 불신자는 행위의 책들에 근거하여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신자는 상급 심판을 받는다. 상급에도 차등이 있으며, 불신자의 형벌에도 차등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동기까지도 보시고 판단하신다. <사람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마 6:1)고 하셨다.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것이 없어지는 것이다. 사람 앞에서 행하지 말라는 말씀은 사람 앞에서 선행이나 설교를 금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과시하지 말라는 뜻이다. 동기를 보신다는 말은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는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형제를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문제도 심판의 기준이 된다. 우리가 흰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은 정결하고 죄로 오염되지 않은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을 생각하며 사는 이는 경성하게 된다. 우리의 동기, 행위, 말 등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동과 동기 전체를 보신다. 은밀한 중에 전체를 보신다. 분명히 자기의 행한대로 심판하신다. 그러나 누구의 행위인가가 중요하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면 우리 모두는 지옥에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는 어린양이 우리 대신 우리 죄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변호사(증보자) 역할을 하고 계신다. 어린양의 피를 믿기 때문에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고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저는 이미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섰었기 때문이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롬 8:34) 자비의 심판대 앞에 섰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예수 믿는 순간 예수님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이미 판결이 나 버렸다. 그러므로 그 판결과 동시에 우리 이름이 어린양의 생명책에 등재되었기에 거기에 등재된 사람은 지옥 가는 심판을 받지 않고 자비의 심판대를 기억하고 심판날 두려워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다. 두려워 할 이유는 없으나 경성해야 할 이유는 있다. 주님께서 우리 위해 엄청난 구속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대로면 멸망하겠지만 그리스도의 행위에 근거하여 영생의 길로 들어감을 얻었음을 감사, 찬양, 헌신해야 한다.

-한국장로신문 [제 1605호] 2018년 8월 4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John 4:24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Congregation
* Doxology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Sister Lumie Hwang
Hymn	2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Mark 14:22-25 Presider
Welcome/Fellowship	Congregation
Offering	Congregation
* Offering Hymn	50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Presider
Anthem	Congregation
Sermon	“The Lord's Supper” Pastor
* Hymn	484 (Be Thou My Vision) Congregation
* Benediction	Pastor
* Lord's Prayer Song	635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우리의 비전 (vision)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	---	---------------

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교육전도사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협동목사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선 교 사 강아급주enna,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비컷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재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파, 사지, 애녹(인도), 정상진홍성일(팔라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오정네(케냐), 김종일백순미(타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례시, 수바스,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보도, 보디소프, 린룸, 수린존(방글라데시), 김택시, 윤영모, 이금순, 김영일, 김력수(군선교)	

	천국시민 양성·만민에게 전도·빈약한 자 구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이 종 윤 Emeritus Pastor Lee Jong-Yun, Ph. D., D.D., D. D.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

■ 마25:1-13

열 처녀 비유는 유대사회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들어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1. 종말을 살고 있는 성도는 등을 준비해야 한다

등은 성도들의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본문을 보면 신앙이 등불을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신부의 들러리들이 든 등불을 보고 신앙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오시는 것이 아니라 등이 준비된 자, 경건한 믿음의 성도들에게 오십니다.

2. 등을 예비한 자는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 중심,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기름은 성령입니다. 기름은 등불을 밝히는 연료요 영적인 에너지입니다. 기름은 성도로 하여금 내적으로는 경건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고,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행 10:38). 기름은 성도를 말씀으로 살게 하고, 세속의 유혹을 견디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기름은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 교회를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기름은 그냥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과 기도의 내공이 쌓여야만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대신에 육체의 기름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육체의 기름은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고 성령의 역사를 그르치게 합니다. 본문의 지혜로운 처녀는 등에 기름을 가득 채우고, 또 다른 한 손엔 보충할 기름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 게으름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지난날의 기도와 지난날의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지금의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채워야 합니다.

3. 등을 든 자는 불을 밝혀야 한다

등이 있고 기름이 채워진 자는 불을 밝혀야 합니다. 등불은 빛이요 생명이며 말씀입니다. 등불이 비취면 어둠이 사라지고, 어둠던 곳이 풍성한 생명의 빛으로 채워집니다. 불을 밝혀라는 것은 영적 통찰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사명자가 걸어가는 길은 등불을 켜 길입니다.

성도는 혼탁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러운 세속의 때를 말끔히 씻어 내는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그 래야 어둠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다.

4. 신부는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운동선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테크닉이나 기술이 아니라 지구력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영적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세월의 온갖 풍상을 겪어보고 시간이 지나봐야 그 사람의 진경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의 재림이 지체될수록 영적으로 깨어 더욱 경성하여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끝까지 참고 견디므로 기다린 자의 구원과 천국문 앞에서 넘어진 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실족하여서 넘어지지 말고 끝까지 빛을 밝히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맺는 말

성령은 두 가지 역사입니다. 심판하는 역사와 정결케 하는 역사입니다. 정결케 하는 영은 사시각각 불일 및 어나 육체의 정욕과 육체의 욕망의 불을 끄고, 목숨 걸고 자기도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을 과감히 버리게 하며 호시탐탐 암습하는 유혹을 성령의 불로 소각하게 하는 영적 혁명을 일으키게 합니다. 성령은 우리 속에서 영에 대한 갈망을 갖도록 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서울교회는 불을 들어야 할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등불은 꺼져갈 때때로 서울교회는 불을 들어야 할 사대적 사명이 있습니다.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고 등불을 밝혀 더 이상 세상이 방황하거나 표류하지 않도록 하는 사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 전재홍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찬 양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명철 목사	임상현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장석남 목사	서문석 장로
III 오후 2시	조원영 목사	이관규 장로

오후 5시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28:1-3...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2(6).....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63(시 145)...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301(460)...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눅 3:3-6...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인 도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주의 길을 예비하라”...	전재홍 목사
* 찬 송 Hymn461(519)...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남태순 권사
성 경 호 4:11-5:7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과 연합하라”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피아니스트: 홍해란,김양원,박수강,김복희

* 표는 회중 모두 일어서는 표입니다. ()는 통일찬송가입니다.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 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핸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안효주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영어예배	예루살렘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수요 II 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11시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모 임

1. 사명자대회 본부 모임 / 매주 오후 3시30분 1층 후문
2. 권사회 야외 기도회 / 30일(화) 베델하우스(오전 9시30분 교회출발)
3. 보보 전도회 월례회 야외모임 / 31일(수) 오전 11시 도곡역 버스
4. 기획위원회 회의소집 / 31일(수) 수요일부예배 후 104호(응접실)
5. 진중세례식 / 11월3일(토) 육군 제22사단(오전 6시30분 교회 출발)
6. 스테반회 11월 월례회 및 성경퀴즈대회 / 11월3일(토) 오후 3시 웨스트민스터 홀(101호)

◆ 알 림

1.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2.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3.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4.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5.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6. 609호
예배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7.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8.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9.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10.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11.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p>앞면에서 계속</p> <p>12.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이종욱(진검)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병), 오병호(따부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p> <p>13.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p> <p>◆ 결 혼</p> <p>1. 김바른원 군(김상용 장로, 차은숙 권사의 아들)과 고요한 양(3교구 고기성 집사, 박분옥 권사의 딸) / 11월3일(토) 오후 12시30분 하남교회 2층 벨렐성전(031-792-5004) / 경기도 하남시 덕풍3동 303-1번지</p>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900명	248명	204명	1,352명	127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10/21)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10월 21일	헌 금	25,182,570	
	특별예배비		40,720
	교회학교운영비		1,230,000
	선 교 비		300,000
	행 사 비		1,480,000
	구 제 비		1,400,000
	비전2020		3,95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758,960
	통 신 비		757,520
	수도광열비		32,610
	차량유지비		841,220
	사무용품비		1,539,600
	소모품비		1,094,380
	환경유지비		131,600
	수선유지비		367,000
	식당운영비		1,096,940
	합 계	25,182,570	15,270,550